

# 경쟁 – Les Halles Part 2

## Part 2 – Les Halles 앞으로 100년의 경쟁

Competition – Les Halles Part 2

Part 2 – competition during the forward 100 years

글. 김성환 Kim, Sunghw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1세기 가량, 파리의 심장부를 지켜오던 거대한 시장 건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후, 이 도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의견은 결정되지 않은 채, 약 30여 년의 시간이 또 흘러갔다.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고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공모전을 통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파리의 사람들은 과거의 철골 구조물을 기억하고 있었다.

파리의 건축사, Patrick Berger와 Jacques Anziutti는 27만 제곱미터를 뒤덮는 철골 구조물을 제안한다. 18,000장의 유리와 7,000톤의 철골은 거대한 그들의 캐노피 구조를 만드는데 들어갔다. 평소 선형적인 구조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과거의 향수를 재해석하고 공간의 장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캐노피 철골 구조를 제안했다. 그들은 날씨나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다. 또한, 이 공간에서 Place du Châtelet으로 접근하는 이동성도 최대한 강조하였다. 사이 공간마다 다양한 용도가 추가로 제안이 되어, 단순한 시장으로 기능하는 거대 구조물이 아닌, 대도시 안에서 시장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예측하려 한 흔적도 보였다. 많은 사람의 비판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지난 70% 이상의 공사가 마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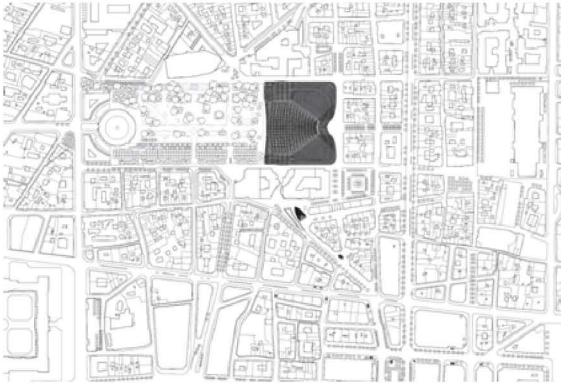
현재 시장인 Anne Hidalgo는 이 건물에 대하여 “도시의 대재앙”이라 표현한다. 과거 시장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이 거대한 건물, 그리고 건축



Les Halles in 1969. Photograph- AFP

사에 대한 반박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120만 유로의 비용, 10년여의 공모전 진행과 공시 기간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된 돈과 시간이 비판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것이었다. 좌파 출신의 사회주의적인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이런 건축물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 파리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파리의 한복판에서 10년 넘게 공사장으로 남아있었고, 이에 대한 불편함과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시장을 이어받은 그녀에게 이러한 상황은 골치 아픈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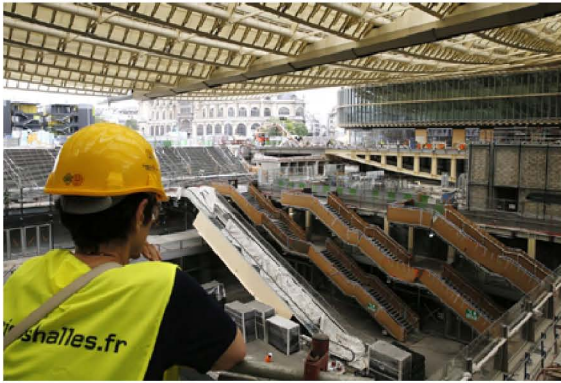
사실, 1970년대 시장을 허물고 파리 지하철 교통의 중심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파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시장이었던, Jacques Chirac은 1981년 당시 이러한 본인 생각을 확실하게 피력하였다. 하지만 Georges Pompidou Center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이 공간은 도시 안에서 혐오공간으로 변질하였다. 문화적으로 기능을 확실하게 하는 건물 옆에서 지하 공간은 대비가 되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2002년 당시 시장 Bertrand Delanoë는 지난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1970년대 있었던 기능을 복원시키고자 한다. 그것이 거대한 캐노피 철골 구



Redevelopment of Les Halles Station by Patrick Berger and Jacques Anziutti architecte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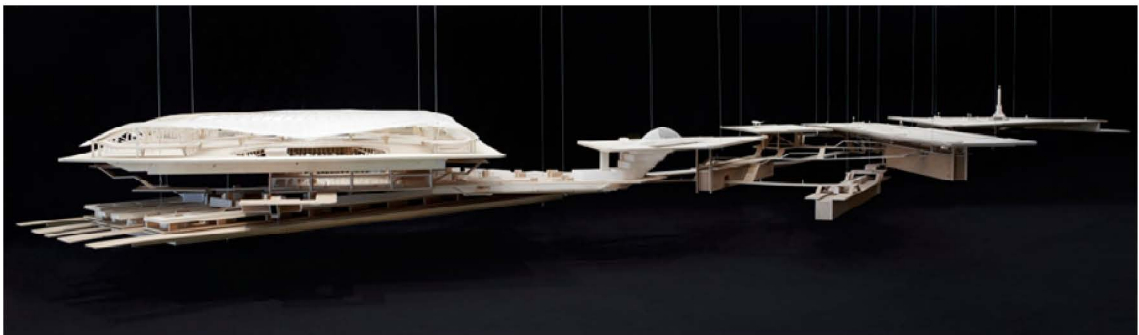
거리풍경 \_ Photograph by Marchand et Meffre



내부 공사 \_ 사진 Patrick Kovarik\_AFP



캐노피 전면부 \_ 사진 Pierre Even



계획모델 \_ 사진 Pierre Even

조가 생긴 정확한 이유였다. 도시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은 많은 절차를 요구한다. 특히나, 한 도시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곳은 더욱이 많은 시간을 갖고, 정치적인 선전이 많이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의 시장들이 Les Halles가 가지는 공간을 끝까지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두 건축사가 이러한 과거와 공간을 이해하였음에도 주변과 조화될 수 없는 형태적인 언어를 제안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답이 부정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서울을 생각했을 때, 도시를 대표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정치적인 색이 매우 강했었다. 한 시장의 임기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잘 진행이 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도시 공간을 새롭게 하였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상황이 매끄러웠던 프로젝트는 더욱 그 결과가 훌륭했다. 반면,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수정이 자주 되었던 프로젝트는 오히려, 과거보다 좋지 않은 결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완벽한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공유가 된다면, 그 완벽한 지점에 가까이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완벽함보다는 훌륭함에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더욱 큰 것이다.

거대한 캐노피 건물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Anne Hidalgo의 임기 동안 남은 공사가 마무리 될지, 혹은 또 어떤 다른 제안이 수용되어 계획이 변경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이 생긴다면 또 고민해야하는 부분인 것이다. 앞으로 파리의 중앙부를 책임질 랜드마크가 훌륭하게 들어서는 그 날까지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